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채점기준





[문제 1]

[문제 1-1]

(가)의 ‘생태계 공학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생태계 공학자’로서 인류가 자신과 지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나)의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 (다)와 (라)에 담긴 인간에 대한 통찰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1. 출제의도

- [문제 1-1] 내용의 사실적 이해 능력과 분석력을 평가하는 것.
- [문제 1-2] 주제통합적 읽기를 통한 종합적 활용력을 평가하는 것.

2. 예시 답안

[문제 1-1]

(가)에서 말하는 ‘생태계 공학자’란 지구의 생물들 중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활동이 자신과 주변의 여러 생물종이 살아가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종류들을 뜻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류는 지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연의 힘을 능가할 정도에 이른 ‘궁극의 생태계 공학자’이다. 생태계 공학자로서 인류의 활동은 자신들에게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지구의 생태계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석연료를 활용하고, 식량 생산을 늘리고, 보건 환경을 개선하며 인류의 인구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류의 풍요는 자연의 평형을 심각하게 깨뜨리고 있다. 인류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바다는 산성화되고 있으며, 숲의 파괴와 빙하 감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24자)

[문제 1-2]

(나)의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오해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스스로의 미래도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을 말한다. 인류가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다)와 (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는 인간이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 겸허한 태도로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된다고 한다. 인간이 그동안의 오류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연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라)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좋은 천성을 지켜야 인류의 자기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성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38자)



3. 세부 지침

[1-1]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적 적용

① (가)의 ‘생태계 공학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였는가? (5점)

– 주변의 생물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5점)

② (나)의 내용에 기반하여 생태계 공학자로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는가? (10점)

–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어나가며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가? (5점)

– 화석 연료 사용, 식량 생산 증가, 보건 환경 개선 등의 예를 사용하였는가? (5점)

③ (나)의 내용에 기반하여 생태계 공학자로서 인간이 자연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는가? (10점)

– 자연의 평형을 깨뜨리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언급하였는가? (5점)

– 생물 다양성 감소, 바다의 산성화, 숲의 파괴, 빙하 감소 등의 예를 사용하였는가? (5점)

[1-2] 제시문의 종합적 활용 및 논제에 대한 심층적 서술

① 인류가 스스로 멸종 위기를 초래하는 위기 상황을 정확히 소개하였는가? (5점)

② (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였는가? (10점)

– (다)에서 인간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적절히 소개하였는가? (5점)

– (다)의 주장을 활용하여 인간이 자연에 대해 저지를 오류를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하였는가? (5점)

③ (라)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였는가? (10점)

– (라)에서 인간이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적절히 소개하였는가? (5점)

– (라)의 주장을 활용하여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하였는가? (5점)

※ 감점 사항

① 분량 미달과 초과: 5점 감점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자료 출처

(가) 엘 C. 엘리스, 『인류세』, 교유서가, 2021.

(나) 조천호,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동아시아, 2019.

(다) 조지수, 『나스타샤』, 지혜정원, 2022.

(라) 칼 세이건,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06.



[문제 2]

[문제 2-1]

제시문 (가)·(라)·(마)를 활용하여, (바)의 고민남과 고민녀에게 (가)의 세 원칙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을 각각 하나씩 밝히고, 두 사람에게 그러한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생애 주기상의 나이만이 아니라 재무 목표의 시기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 (20점)

[문제 2-2]

제시문 (가)·(나)·(다)·(마)를 활용하여, (바)의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시오. 그 사람에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100-나이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시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 상품 세 종류 이상을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시오. 아울러 그 구성이 왜 그 사람에게 적합한지 분산 투자와 생애 주기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50)자로 할 것. (30점)

1. 출제의도

- [문제2-1] 자산 관리의 세 원칙과 생애 주기·재무 설계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나이라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재무 목표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원칙이 결정된다는 점을 서로 다른 두 사례에 적용·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특히 두 인물에서 나이 기준의 판단과 목표 기준의 판단이 정확히 뒤집힌다는 점을 포착하는지가 변별의 핵심이며, (바)의 수치를 실제로 계산해 보는지도 변별 요소가 됨.
- [문제2-2] ‘100-나이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안전자산·위험자산 비율을 스스로 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금융 상품별 특성과 분산 투자 원리를 근거로 구체적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논증하는 종합적·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함. 제시문(마)의 정의가 예금과 주식의 위치만 규정하므로, 중간적 성격을 지닌 채권을 스스로 분류하고 그 근거를 (나)에서 끌어오는지가 부수적 변별 요소가 됨.

2. 예시 답안

[문제2-1]

고민남에게 우선하는 원칙은 안전성이고, 고민녀에게는 수익성이다. 나이만 보면 판단이 정반대가 된다. 30세인 고민남은 ‘100-나이의 원칙’상 위험자산을 70%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여유 자금 2,000만 원과 3년 치 월 흑자 3,600만 원을 합하면 5,600만 원으로 목표 5,000만 원에 닿는다. 지출 시점도 3년 뒤로 확정되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다. 그에게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원금을 지키는 안전성이 가장 앞선다. 반면 45세인 고민녀는 나이로는 위험자산이 55%로 낮아지지만, 노후 대비라는 목표는 은퇴까지 십수 년 남았고 필요액도 정해져 있지 않다. 회복할 시간이 넉넉한 만큼 수익성을 추구할 여력이 있고, 퇴직금이 없는 그녀가 노후 자금을 쌓으려면 오히려 그래야 한다. 이처럼 우선할 원칙은 나이가 아니라 목표의 시기와 규모까지 따져야 정해진다. (436자)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2-2] [고민남 선택]

고민남을 선택한다. ‘100-나이의 원칙’에 따르면 30세인 그의 위험자산 비중은 70%이다. 그러나 여유 자금 2,000만 원에 3년 치 월 흑자를 더해 5,600만 원, 목표 5,000만 원을 600만 원 넘길 뿐이다. 2,000만 원의 70%를 주식에 두었다가 반토막 나면 700만 원을 잃어 목표에 미달한다. 따라서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70%로 낮추고 월 흑자는 정기 적금으로 적립한다.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으나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작으므로 안전자산으로 본다. 2,000만 원을 예금 40%, 채권 30%, 주식 30%로 배분한다. 예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낮고 예금자 보호를 받아 확정 지출을 지키며, 채권은 우량 발행자의 이자 수익으로 이를 보완한다. 주식은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수익성을 더한다. 성격이 다른 세 자산에 나누어 담으면 주식 600만 원이 절반으로 줄어도 예금과 채권이 손실을 보충해 5,300만 원이 남고 목표는 지켜진다. 긴 소득 기간은 결혼 이후에 활용하면 되므로 지금은 잃지 않는 구성이 적합하다. (534자)

[문제2-2] [고민녀 선택]

고민녀를 선택한다. ‘100-나이의 원칙’에 따르면 45세인 그녀의 위험자산 비중은 55%이다. 노후까지 십수 년이 남아 회복할 시간이 넉넉하므로 크게 낮출 이유는 없으나, 소득이 불규칙하고 퇴직금이 없는 점을 반영해 여유 자금 5,000만 원을 위험자산 45%, 안전자산 55%로 조정한다.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으나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작으므로 안전자산으로 본다. 안전자산 55%는 정기 예금 20%, 수시 입출금 예금 15%, 채권 20%로 구성한다. 예금은 안전성이 높고 예금자 보호를 받으며, 수시 입출금 뒀은 소득이 끊기는 달의 생활비를 감당할 유동성을 준다. 채권은 안정적 이자 수익으로 예금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한다. 위험자산 45%는 주식에 두어, 목표가 장기이고 필요액도 열려 있는 만큼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노후 자금을 키운다. 성격이 다른 자산에 나누어 담으면 주가가 하락해도 예금과 채권이 보충하므로 한 상품에 몰아넣는 것보다 안전하다. 나이만 보아 안전자산에 머무르면 노후 자금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531자)

※ [문제1]의 정답 방향은 다음과 같다. 나이만 볼 때— 고민남: 수익성/ 고민녀: 안전성(오답 방향). 목표의 시기와 규모까지 볼 때— 고민남: 안전성/ 고민녀: 수익성(정답 방향). 두 인물에서 판단이 정확히 뒤집힌다. 한편 [문제2]의 두 예시 답안은 모두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채권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 답안도 동등하게 인정하며, 그 경우의 배분 예시는 아래 [문제2] 채점 시 유의 사항을 참조한다.

3. 세부 지침

[문제2-1]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분석적 적용(20점)

① 제시문 이해와 사례 분석의 정확성(10점)

- (가)의 자산 관리 세 원칙(안전성·수익성·유동성)과 (마)의 ‘100-나이의 원칙’ 및 그 한계(나이 외에 목표한 지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5점)
- (라)에 근거하여 (바) 두 인물의 생애 주기 단계(청년기/중·장년기)와 각자의 재무 목표의 시점 및 규모(고민남: 3년 뒤, 5,000만 원으로 확정된 목표/ 고민녀: 은퇴 후, 필요액이 정해지지 않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은 개방형 목표)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파악하였는가? (5점)

② 원칙 도출과 근거 설명의 적절성(10점)

- (가)의 세 원칙 가운데 고민남에게 안전성을, 고민녀에게 수익성을 각각 하나씩 우선 원칙으로 밝히고 두 사람을 대비하였는가? (5점)
-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판단과 재무 목표의 시기·규모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 서로 어긋난다는 점을 포착하고,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과 손실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원칙의 차이를 논증하였는가? (5점)

※ [문제2-1] 채점 시 유의 사항

- 고민남에게 ‘수익성’, 고민녀에게 ‘안전성’을 우선 원칙으로 제시한 답안은 (마)가 명시한 원칙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②에서 감점한다. 다만 나이 기준의 판단을 먼저 제시한 뒤 목표 시기를 근거로 이를 수정·역전시킨 서술은 감점하지 않는다.
- [원칙의 개수] ‘각각 하나씩’이라는 지시에도 둘 이상을 나열한 경우,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첫째로 든 원칙이 위 기준과 일치하면 ②-1을 인정한다. 우선순위 없이 병렬 나열하여 무엇을 가장 앞세우는지 알 수 없으면 ②-1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민남에게 안전성을 밝힌 뒤 유동성을 부차적으로 덧붙인 서술은 감점하지 않으나, ‘유동성’만 제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는 목표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을 때 안전성만을 지목한다.
- [산술적 검증] 고민남의 여유 자금 2,000만 원과 3년 치 월 흑자 3,600만 원의 합(5,600만 원)이 목표액 5,000만 원을 넘는다는 계산은 ②-2의 유력한 논거이나 필수 요건은 아니다. 목표 시점(3년)과 손실 회복 가능성만으로 타당하게 논증한 경우에도 배점을 온전히 인정한다.
- [자금 부족을 전제한 답안] ‘자금이 부족하므로 위험을 감수해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논하여 고민남의 우선 원칙을 수익성으로 제시한 답안은, (바)의 수치를 계산하지 않았거나 잘못 계산한 것이므로 ②에서 감점한다.
- 지정 제시문 (가)·(라)·(마) 가운데 일부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경우 ①에서 감점한다. (나)·(다)를 부수적으로 언급한 것은 감점하지 않는다.

[문제2-2] 제시문의 종합적 활용 및 논제에 대한 심층적인 서술(30점)

① 제시문 (가)·(나)·(다)·(마)의 핵심 내용을 문제 해결을 위한 논거로 적절히 활용했는가? (5점)

- (가)의 자산 관리 원칙과(나)의 금융 상품별 특성(예금의 안전성·예금자 보호, 주식의 수익성·원금 손실 위험, 채권의 중간적 성격 등)을 활용하였는가? (3점)
- (다)의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의 원리를 활용하였는가? (2점)

② 안전자산·위험자산의 비율을 ‘100-나이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시하고 조정했는가? (10점)

- 선택한 인물의 나이에 원칙을 적용하여 출발점이 되는 비율(고민남 위험자산 70% / 고민녀 위험자산 55%)을 명시적으로 산출하였는가? (5점)
- 그 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정한 이유를 목표 지출 시점까지 남은 기간·손실 회복 가능성과 인물의 개별 사정(고민남: 목표액 5,000만 원 대비 확보 가능액 5,600만 원으로 여유가 600만 원뿐이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며 저금리 학자금 대출이 있음/ 고민녀: 소득 불규칙성·퇴직금 부재, 필요액이 정해지지 않은 개방형 목표)에 근거하여 논증하였는가? (5점)

③ 그 비율에 맞추어 세 종류 이상의 금융 상품으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가? (10점)

- 예금·주식·채권 등 세 종류 이상의 상품과 각각의 비중을 제시하고, 그 비중이 ②에서 정한 안전 자산·위험자산 비율과 정합적인가? (5점)
- 각 상품을 편입한 이유를 (나)의 상품별 특성과 (다)의 분산 투자 효과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그 구성이 선택한 인물의 생애 주기 단계 및 재무 목표 시점에 적합한 이유를 논증하였는가? (5점)

④ 논리적 일관성과 표현의 적절성(5점)

- 논지가 명확하고 논리적 비약 없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는가?
- 어휘 사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문장력이 우수한가?

※ [문제2-2] 채점 시 유의 사항

- [문제2]는 선택형이므로 고민남·고민녀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방하며, 위 두 예시 답안을 각각의 채점 기준으로 적용한다. 선택한 인물의 상황과 무관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한 경우②·③에서 감점한다.
- [채권의 분류] 제시문(마)의 정의는 예금과 주식의 위치만 규정하고 채권을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한 답안과 위험자산으로 분류한 답안을 동등하게 인정한다. 요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지를 답안에 명시할 것. 둘째, 그 근거를 (나)에서 끌어올 것 (안전자산 측: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정부·우량 기업이 발행함/ 위험자산 측: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세 손실도 가능하다는 뜻이며 예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 분류를 밝히지 않아 상품 비중과 ②의 비율이 정합적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1에서 감점한다.
- [채권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배분 예시] 고민남: 여유 자금 2,000만 원을 안전자산 70% = 예금 70% / 위험자산 30% = 주식 15% + 채권 15%. 고민녀: 5,000만 원을 안전자산 55% = 정기 예금 35% + 수시 입출금 예금 20% / 위험자산 45% = 주식 25% + 채권 20%. 이러한 구성도 ③의 배점을 온전히 인정한다.
- [국채와 회사채] (나)가 발행자를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국채와 회사채의 구분은 요구하지 않는다. 구분하여 서술한 답안(예: 국채는 안전자산, 회사채는 위험자산)은 인정하되 그 자체를 가점 요소로 삼지 않는다. 다만 상품 종류 수를 산정할 때 국채·회사채·지방채 등은 모두 ‘채권’ 1종으로 본다.
- [국채와 예금의 안전성 비교] ‘국채가 예금보다 안전하다’는 서술은 제시문 밖의 주장이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증한 경우 감점하지 않되, 근거 없이 단정하고 이를 배분의 전제로 삼은 경우 ④에서 감점한다. 제시문 (나)가 함축하는 안전성의 서열은 예금 ≥ 채권 > 주식이다.
- 최종 비율의 구체적 수치에는 정답이 없다. ②는 ‘출발점 비율의 산출 → 조정의 근거’라는 논리적 연결의 타당성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정의 방향이 인물의 상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경우(예: 고민남의 위험자산 비중을 70%보다 높이면서 3년 단기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고민녀의 위험자산을 0%에 가깝게 두면서 노후까지의 장기 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②-2에서 감점한다.
- ‘100-나이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임의의 비율을 제시한 경우 ②-1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 제시문 (마)의 예시(20세80%, 70세30%)는 두 인물의 나이와 무관하므로, 두 선택지 모두 비율을 스스로 산출해야 한다.
- 상품별 비중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②에서 제시한 안전자산·위험자산 비율과 어긋나는 경우 ③-1에서 감점한다. 비중을 백분율이 아니라 금액(예: 고민남 2,000만 원 중 600만 원, 고민녀 5,000만 원 중 2,250만 원)으로 제시한 경우에도 ②의 비율과 정합적이면 인정한다.
 - [배분 대상 자금] 고민남 2,000만 원, 고민녀 5,000만 원이다. 고민남의 경우 3년 치 월 흑자 3,600만 원을 합한 5,600만 원을 배분 대상으로 삼은 답안, 월 흑자를 정기 적금으로 따로 적립한 다고 밝힌 답안 모두 인정한다. 배분 대상을 밝히지 않고 비중만 제시한 경우에도 감점하지 않는다.
 - [목표액의 오독] 신희집 보증금까지 고민남이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답안은 (바)의 ‘신희집 보증 금은 양가에서 도와주시기로 했고’를 읽지 못한 것이므로 ②-2에서 감점한다.
 - 보험·연금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상품 종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그 자체를 가정 요소로 삼 지 않는다. 다만 보험은 위험 관리 수단이므로 자산 배분 비율과 구분하여 서술해야 하며, 이를 안 전자산·위험자산 비율에 혼입한 경우 ③-1에서 감점한다.
 -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금융회사별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고민녀의 5,000만 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으므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예치해야 한다’는 서술은 사실 오류이다. 다만 제시문 (나)가 보호 한도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④에서 5점 범위 내 감점에 그치고, ①·③의 배점은 별도로 판정한다. 반대로 ‘예금은 전액 보호되므로 5,000만 원 전부를 예금에 두어 도 된다’는 서술은 노후까지의 장기 시계를 무시한 것이므로 ②-2에서 감점한다.
 - 고민남의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논한 답안은, ‘저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 중’이라는 (바)의 조건을 읽지 못한 것이므로 ②-2에서 감점한다. 다만 대출의 존재를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 는 근거로 삼은 서술은 인정한다.
 - [부족분을 위험자산으로 메우려는 답안] 고민남의 자금이 목표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100-나이의 원 칙’의 70%를 그대로 두거나 그 이상으로 높인 답안은, (바)의 수치를 계산하지 않았거나 잘못 계 산한 것이므로 ②-2에서 감점한다. 다만 목표액을 넘는 여유가 600만 원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위험자 산을 일부 유지한 답안(예: 20~40%)은 인정한다. 반대로 위험자산을 0%로 두고 전액을 예금에 예 치한 답안은, 그 근거를 목표액과 손실 여력으로 논증하였다면 인정하되 상품 종류 요건(③-1)은 별 도로 판정한다.
 - 생애 주기를 논거로 삼는 과정에서 지정 제시문 밖의 (라)를 함께 언급한 것은 감점하지 않는다.

※ 감점 사항

① 분량 미달과 초과: 5점 감점

- [문제1] 350자 미만 또는 450자 초과인 경우
- [문제2] 450자 미만 또는 550자 초과인 경우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③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분량이 과다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자료 출처

- (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안전성·수익성·유동성) — 천재교육 『경제』 (pp192~194), 동아출판 『통합사회』 (p155)
- (나) 금융 상품의 유형과 특성(예금·주식·채권·보험·연금), 예금자 보호 제도 — 천재교육 『경제』 (pp197~203), 동아출판 『통합사회』 [p155~158]
- (다)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 지학사 『통합사회』 (pp185~190), 천재교육 『경제』 (pp 194)
- (라) 생애 주기와 재무 설계(생애 주기별 수입·지출 곡선, '생애 흑자') — 천재교육 『경제』 (pp204~209), 지학사 『통합사회』 (pp193~197), 동아출판 『통합사회』 (pp154~159)
- (마) 재무 설계의 절차 및 '100-나이의 원칙' —EBS 『수능완성 경제』 (2027학년도, pp90~95), 천재교육 『경제』 [pp 204~206] . 단, 원칙의 한계(목표 지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서술)는 출제진이 문항의 변별을 위해 보강한 내용임.
- (바) 자산 관리 사례(고민남·고민녀) — 출제진 작성. 고등학교 교과서의 자산 관리 사례 활동을 재구성